

인간의 실존과 계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신학을 바탕으로

서 명 옥*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1. 하느님과 그리스도 안에 불림 |
| II.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 이해 | 받은 인간(인간의 하느님 본성 참여): 계시의 목적 |
| 1. 계시의 원천과 예수 그리스도 | 2.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
| 안에서의 하느님과 인간의 계시 | 듣는 인간: 계시에 대한 신앙 |
| 구상(構想) 비교 | 3.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간: |
|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 계시의 삶 |
| 계시 개념의 특징 | IV. 나가는 말 |
| III. 인간의 실존과 계시 | |

국문 초록

계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제이자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초이다. 이는 그리스도교가 근본적으로 어떤 신화적 사상이나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 생성된 종교라는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된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계시의 내용이며 중개자이고 완성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자신을 그리스

* 본고는 2012년도 광주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논문임.
필자는 현재 신학저술·번역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도인이라 고백하는 이는 누구나 이 계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된다. 계시 자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삶의 현실에서 이러한 계시와 인간의 실존과의 밀접한 관계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 실존의 내용과 계시 신앙의 내용 사이에 괴리와 단층이 존재한다면, 계시가 비록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 해도 인간을 걸도는 공허한 교의(Dogma)에만 머물러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당연히 계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해가 가져온 결과다. 본고는 이런 문제 제기를 시발점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계시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이며, 인간 실존의 내용이자 의미가 되는 사건임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신학을 바탕으로 밝힌다.

계시는 우선 가르침이 아니라 사건이다. 곧 인간이 통상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초자연적 진리에 대한 신적 가르침이나 교의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자기 전달로서 인간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한 사건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출현, 말씀의 육화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예수의 전 현존, 그가 말과 행위로써 보여준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며 그것은 정확히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다. 곧 이 육화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내재성)이 서로 중개되는(K. Rahner), 하느님의 인간화와 인간의 신화(神化), 하느님의 계시와 인간의 계시가 일어나는, 하느님과 인간의 일치 사건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육화, 그리스도의 파견은 하느님의 말씀인 그를 믿으며 응답하는 인간에게 도착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육화는 끊임없이 온갖 다양한 삶의 조건과 영역에서 인간 각자에게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계시 실행이요, 계시의 삶이다.

주제어: 예수 그리스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 인간의 실존, 인간의 계시

I. 들어가는 말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일정한 시간

과 공간 속에서 시작된 역사적 종교이면서도 인간 내면의 자연적 종교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외부의 초월적 절대자, 하느님의 계시에 입각하여 형성되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계시 개념은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 데에 열쇠 역할을 하는 가장 근본적 개념이자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초이다.¹⁾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초월적 기원과 기초에 대한 확신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백이자 자기 이해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자기 이해 안에서 계시 개념은 그리스도교의 긍정적 신적 기원과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초자연적 본질의 보증을 위한 핵심 기능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제 공식적으로 “계시 신앙”으로, 신학은 “계시 신학”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교 자체는 “계시 종교”로 이해되고 명명되었다.²⁾

그렇다면 “계시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그것의 직접적인 신적 기원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의 가장 내면적 요소로 존재하는가? 어떻게 그것이 하느님의 유일하고도 특별한 은총으로 존재함을 중단하는 일 없이 인류의 역사와 동일시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계시가 언제 어디서나 구원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 안에, 성경의 문자 안에 존재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채로, 언제 어디서나 실재할 수 있는가?”³⁾ 칼 라너(K. Rahner)의 계시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은 계시가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인간과 관계된 것이며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실존, 인간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유에 입각한 전적으로 신적

1) 심상태, “칼 라너의 계시이해”, 『神學展望』 81, 1988, 2 참조; K. Rahner, *Schriften zur Theologie XIV*, Zürich, 1980, 56 참조.

2) J. Schmitz, “Das Christentum als Offenbarungsreligion im kirchlichen Bekenntnis”, *Handbuch der Fundamentaltheologie*(이하 HFth로 표기), Bd. 2, Hg., W. Kern, u.a., Freiburg, 1985, 15.

3) K. Rahner, “Bemerkung zum Begriff der Offenbarung”, K. Rahner & J. Ratzinger, *Offenbarung und Überlieferung*, Freiburg, Basel, Wien, 1965, 13.

인 행위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⁴⁾, 더 엄밀히 말해 계시의 수신인인 인간 없이 하느님의 계시란 존재의 필요성에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일상과 사고 안에서 계시는 여러 가지 몰이해와 무관심, 회의와 거부가 동반된, 이상하고 의심스런 뉘앙스를 풍기는 중요치 않은 주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신학 안에서조차 계시라는 말과 연관된 단어들이 장엄하다기보다는 공허하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지며⁵⁾, 교회 안에서도 계시란 말은 친근하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계시의 내용임을 생각할 때- 성문화된 법전처럼 넘볼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과 계시 사이의 이런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이는 누구나 이 계시와 분리되어 있을 수 없다. 자신이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계시의 매체이자 내용이기 때문이다. 곧 어느 계시 종교의 그것처럼 어떤 가르침이나 문서가 아닌 구체적인 한 인간, 나자렛 예수이다. 그가 바로 계시의 중개자이며 내용이고, 근원이며 완성이다. 곧 이 예수와 함께 죽음을 넘어서신 새로운 구원의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요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계시는 인간과 그의 실존과 분리될 수 없음이 자명해진다. 이렇듯 밀접한 인간의 실존과 계시의 불가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계시가 감히 접근해서는 안 될 두려움과 어려움의 대상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본고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계시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상 삶의 주제로서 인간 실존의 내용이며 그것의 의미를 지닌 사건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하느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아닌 -물론 계시의 근원이 하느님이긴 하나- 인간

4) 서경룡, “계시와 증거”, 『가톨릭 신학과 사상』 44, 2003, 201 참조.

5) M. Seckler, “Der Begriff der Offenbarung”, *HFth*, Bd. 2, 61 참조.

을 기초로 생각해 보는 계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는 하느님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 계시가 교의(Dogma)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느님 백성의 실제 삶의 증거로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신학과도 부합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계시 자체인 하느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살지 않고서는 참 그리스도인의, 인간 실존의 의미와 목표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계시가 하느님 편으로부터의 계시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확정의 의미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또 결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인간 편에서의 계시에 관한 문제라면 그것은 계시가 인간에 의해 받아들여져 믿을 수 있는 것이 일어나고 또 나타나야만 한다. 결국 계시가 가능한 장소는 역사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다.⁶⁾

이와 같은 관점 아래 본고에서는 첫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 개념을 바탕으로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모색하기 위해 『계시 현장』이 탄생하기까지의 험난한 과정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신학의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두 구상(Konzepte)을 보기로 들어 고찰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계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실존과 계시와의 관계를 (『계시 현장』과 『사목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신학을 토대로 탐구할 것이다.

II.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 이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의회 사상 최초로 오직 계시만을 다룬 독립된 공식적 문헌, 『계시 현장』(*Dei Verbum*, 이하 DV로 표기)을 만들어냈다. 이 공의회가 내놓은 문헌 중에 가장 길고도 극적인 심의 과정(1962.10-1965.11)을 거쳐 제정 공포된 이 현장은 그 자체로 이 공의회의 성공에 가히 운명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현장으로

6) H. Fries, *Fundamentaltheologie*, Graz, Wien, Köln: Styria, 1985, 223-224 참조.

공의회가 자의식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곧 계시의 역사성과 육화에 대한 심화된 이해가 포괄적인 신학적 인식 원리이자 그리스도 교적 행동 원리로서 공의회에 분명하게 의식되었던 것이다.⁷⁾

이것은 결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학적 진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신학적 입장을 이 공의회가 결정적으로 극복해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신학적 프로그램을 이 공의회가 따르고 있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와 결부된 것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계시 현장』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이 현장을 ‘공의회가 일궈낸 일을 평가하는 최고의 척도’⁸⁾라고까지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본고는 공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결정적인 의미를 얻게 된, 그리고 『계시 현장』이 탄생하기까지의 어려운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조적인 두 구상(構想)을 예로 하여 고찰하면서 무엇보다 계시의 이해에 대한 두 안(案)의 비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런 다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계시 개념의 특징을 살필 것이다.

이 두 구상이란, 『계시 현장』 준비를 위해 오타비아니(A. Ottaviani) 추기경의 지도 아래 신학 위원회가 제시한 “계시의 원천”(De Fontibus Revelationis)⁹⁾과 이에 대한 역(逆)구상으로 칼 라너가 라칭거(J. Ratzinger)와 연합하여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계시”(De revelatione Dei et hominis in Jesu Christo facta)이다.

7) G. Steins, “Bibel im Gespräch. Die verkannte Offenbarungskonstitution Dei Verbum”, *Herder Korrespondenz(Spezial)*. Das unerledigte Konzil. 40 Jahre Zweites Vatikanum, 2005.10, 17.

8) E. Klinger, *Armut. Eine Herausforderung Gottes. Der Glaube des Konzils und die Befreiung des Menschen*, Zürich: Benziger, 1990, 135-136 참조.

9) 『계시 현장』(Dei Verbum)을 위한 첫 번째 구상(構想)으로 제시된 것이었으나 본고에서 고찰되듯이, 이전의 교의(Dogma)들이 반복되고 새로운 것을 담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이 공의회가 지향하는 성경적, 사목적 그리고 보편교회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안(案)이라는 입장과 함께 -격렬한 비판과 토론 끝에- 1962년 11월 20일 이미 공의회 초반 각하되었다. 참조: K. Rahner & H. Vorgrimmler, *Kleines Konzilskompendium*, Freiburg: Herder, 1966, 361; E. Klinger, 앞의 책, 91.

1. 계시의 원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느님과 인간의 계시 구상(構想)의 비교

1) 신학적 단초

우선 계시에 대한 신학적 단초에서 이 두 구상은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계시의 원천”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전체 5장으로, 1장은 계시의 이중(二重) 원천, 2장은 성경의 영감, 무류성 그리고 문학적 구조, 3장은 구약 성경, 4장은 신약 성경, 5장은 교회 안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⁰⁾ 논증의 이러한 구성에서 이미 계시의 ‘두 원천’(성경과 성전)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것에 이어 성전(聖傳) 문제에 대한 적절한 상론이 누락되어 있고, 이 구상이 계시 자체와 계시의 원천 사이를 구별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계시의 원천”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시작한다. “계시는…구약과 신약의 구원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¹¹⁾(*Revelatio… nobis advenit Veteris et Novi Foederis oeconomia*). 이러한 단초와 함께 가장 근본적인 선(先) 결정이 내려지는데, 곧 계시가 그 자체로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시 자체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지 방법론적 주제의 제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계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된 현대의 모든 문제점과 논증적으로 전혀 토론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계시 실증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계다가 오히려 계시 내용(Message)의 수신자가 양자택일 앞에 서게 된다. 곧 구약과 신약 안에서의 하느님의 계시 사실을 무성찰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 안

10) 이 구상은 싸우어(H. Sauer)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된 것을 참조로 하였다(라틴어 원문: *Schema constitutionis dogmaticae de fontibus revelationis*, in: AS I/3, 14-26). H. Sauer, “Erfahrung und Glaube. Die Begründung des pastoralen Prinzips durch die Offenbarungskonstitution des II. Vatikanischen Konzils”, *Würzburger Studien zur Fundamentaltheologie*, Bd. 12, Hg., E. Klinger, Frankfurt, 1993.

11) 싸우어의 글에서 재인용: H. Sauer, 앞의 책, 485.

(案)이 향하고 있는 목표 집단에서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본래 신학적 질문인 하느님과 하느님의 행위와 구원 사업 그리고 그분의 계시는 결국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고 따라서 어떤 토론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¹²⁾

또한 계시의 두 원천, 성경과 성전은 중요한 근본 개념과 신학적 규정이 해명되지 않은 채 전제되어 있다. 두 원천이 존재하긴 해도 서로 관련이 없는 실체로 나타나며,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계시의 이중 원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4항에서 성경은 아무 중개 없이 성전 옆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5항의 두 원천 사이의 관계에서는 성전의 의미가 계시된 진리의 인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성경은 결국 “신앙의 진리의 선포와 설명을 위해 하느님 자신에 의해서 주어진 도구”¹³⁾로 명명된다. 이러한 성경의 도구화와 유사하게 성전의 개념 역시 성경에서 분명치 않거나 대체로 확인되지 않은 온갖 자료적 내용의 모음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4항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곧 성전이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또는 성령의 감도를 받아 얻게 된, 그리하여 교회에…말하자면 손에서 손으로 전달한, 교의와 도덕 철학 전반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¹⁴⁾ 이것은 성전의 내용 범위를 아주 모호하게 만들고, 성전을 (성취되어가는 현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존된 과거의 관점에서 결정하여 성전의 과정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성전 개념과의 관련 구조는 그대로 계시 개념과의 관련 구조와 상응한다. 곧 계시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현재와 관계되며 미래를 여는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고려 아래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권에 의해 교의학적으로 관리되는 구체화된 내용이라는 고려 아래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12) 같은 책 참조.

13) 싸우어의 글에서 재인용: H. Sauer, 앞의 책, 503.

14) 같은 책.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는 교황 요한 23세가 이 공의회에 위임한 보다 깊은 “교의학적 관통” 안에서의 “전진을 위한 도약”의 임무는 이행될 수 없었다.¹⁵⁾ 왜냐하면 종교적 실존의 관점에서 신학적 관통이 필요한 것이, 곧 구약의 구원 경륜이 지향하고 있고 신약에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느님 계시가 알려진 것으로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칼 라너의 역(逆) 구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느님과 인간의 계시”(이하 ‘하느님과 인간의 계시’로 표기)는 바로 이 주제를 받아들여 사유하고 있다. 이 구상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하느님의 불림을 받은 인간’을 설명하고, 2장은 ‘인류의 역사 안에 감춰진 하느님의 현존’을 명확히 하며, 3장은 ‘교회의 선포 안에 계시된 하느님의 현존’으로 안내한다.¹⁶⁾ 특히 칼 라너의 구상의 신학적 단초는 그가 미래의 『계시 현장』의 서두에 제시할 것을 권고한 서문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성령 안에 모인 이 거룩한 시노드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이 시대의 곤궁 속에 살고 있는 교회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의 구원의 말씀을 새로이 선포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교회는 전체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할(마태 28,19 이하)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시대의 상황이 이러한 사명에 새롭고 간절한 힘과 현재성을 부여한다.”¹⁷⁾

서문의 이 첫 문장이 공의회의 의도를 자각하게 만들었고 그와 함께 결정적인 주제, 곧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 아래 서 있는 교회라는 주제를 의식하게 했다. 이 교회의 사명에 ‘새롭고 또 보다 간절한 힘과 현재성’을 부여할 구체적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 안(案)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 생활 환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사명 자체가 실

15) P. Hebblethwaite, *Johannes XXIII*, Zürich, 1986, 546.

16) K. Rahner, “De revelatione Dei et hominis in Jesu Christo facta”, *Glaube im Prozess*, 33-50 참조.

17) K. Rahner, “Bemerkung zum Begriff der Offenbarung”, 48.

행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역사의 생활 환경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표현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자기 전달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적 범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역사와 무관한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구체화되는 하느님의 계시 자체의 본질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⁸⁾

바로 이 문제, 곧 구체적인 역사적·사회적 삶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느님 계시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에 두 안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계시의 원천”은 숙고되지 않은 플라톤주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계시의 본질이 시간을 초월해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단초를 근거로 하느님의 계시를 지금 그리고 여기의 구체적인 삶에 고착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초자연적 영역을 단순한 내재주의로 축소했다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게 했고, 이어 이 안의 거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에 반해 칼 라너의 단초는 그리스도 중심적 기본 원리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하느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내재성이 계시의 절대적인 절정 안에서 중개되어, 이 중개가 신앙의 실존의 지속적인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칼 라너의 구상이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느님‘과’ 인간의 계시”, 왜냐하면 믿는 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신적 초월성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안에서 완성되는 자신의 인간적 실존의 고유한 현실도 마찬가지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생활 조건은 등한히 여겨도 되는 부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거기에서 하느님의 계시가 입증되는 것이다.¹⁹⁾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이 된 육화 사건은 계시의 절정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꾸로 인간의 말과 행위 또한 하느님 말씀의 차

18) H. Sauer, 앞의 책, 488 참조.

19) 같은 책 참조.

원과 높이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의미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말과 행위가 하느님 말씀의 차원과 질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의 계시는 일어나는 것일 것이다. 칼 라너의 구상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인간의 계시’라는 말을 ‘하느님의 계시’와 대비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서로 중개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결국 이 공의회가 전통적 범주 안에서 해석되지 않고 그럼으로써 결정적 신학적 진보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감안한다면, 계시 신앙과 구체적 생활 환경의 규명과의 관계가 “계시의 원천”과 “하느님과 인간의 계시”의 근본적 차이임이 인식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계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의 발견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하느님 구원의 신비로 향하는 통로가 마찬가지로 세상의 구체적 생활 조건 안에서 세상 현실을 이해하는 통로를 그 안에 지니고 있다는 것, 그런 까닭에 교회가 아직 구원되지 않았지만 구원으로 불린 세상의 현실에 대한 교회의 임무로써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에 대한 총괄 개념이며, 이 교회의 임무는 또한 ‘하느님의 백성’²⁰⁾에 속하는 인간의 임무와 관련되고, 본고에서는 이를 인간의 계시와 관련하여 고찰한다.

2) 계시 개념에 대한 입장

여기서는 두 구상 각각의 계시 개념에 대해 보다 자세히 비교해

20)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현장』(*Lumen Gentium*)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교회’ 개념으로, 평신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제, 주교, 교황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며, 하느님 안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교회 현장』은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교의와 함께 교회가 왕적, 사제적 그리고 예언자적 사명을 지닌 백성이라는 사목적 입장을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교회가 전 인류를 향해 열려 있고 전 인류를 포용하며, 또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태도가 표현된 것으로 보면 교회적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교회 현장』 2장 참조.

본다. 곧 하느님의 계시가 어떤 전제로부터 파악되고 그로 인해 신앙과 교회에 있어 계시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계시의 원천”의 문제점은 계시 개념 자체는 전제되었지만 계시 자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계시의 원천”에서는 무엇보다도 계시가 전적으로 말에 묶여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또한 결정적이다. 곧 계시가 말과 행위 안에서의 전달로서가 아니라 말로 된 전달의 의미에서 이해되고 있다.²¹⁾ 하느님의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말과 행위가 서로를 해석한다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말은 원천적으로 하느님의 현재 안에서 영을 일으키는 것으로, 현재 순간에서 구원을 일으키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자체 안에 종결된 역사적 사실로서, 그것의 보존과 관리와 전달이 교회에 위탁된 “신앙의 유산”(depositum fidei)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²²⁾ 이러한 계시(내용)의 선포는 선포 자체의 사건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시의 수신자가 그 자신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한 규범적 과거에 고정되면서 일어난다. 따라서 “계시의 원천” 관점에서 보면 생명력과 현재성의 보증이 되는 영(靈)의 원리가 과거의 중요성을 밝히는 계시의 (진위에 관한) 이해와 보존의 원리로 축소되어 있다.

하느님이 계시하는 말씀과 인간 쪽에서의 신심 있는 수신이 이 구상의 사고 안에서 어떻게 함께 작용하고 있는지 이 구상이 설명하고 있는 영감(靈感)의 개념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하느님이 성경의 “본래의 저자”(auctor principalis)이고 인간 저자는 성령의 단순한 “도구”(instrumentum)에 지나지 않는다.²³⁾ 신적 은총 그리고 (제한된 시간적 조건 아래 있는) 인간의 침해되지 않은 자유의 공동 작용이 이 구상에서 왜 드러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는 이 구

21) E. Klinger, 앞의 책, 91 참조.

22) H. Sauer, 앞의 책, 490 참조.

23) 같은 책 참조.

상의 저자들이 서로 중개될 수 없는 자연과 초자연의 개념을 다루지 못한 까닭에 신적 은총의 작용은 오로지 인간적 자유의 희생으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만 관철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²⁴⁾

이것은 다시 “하느님과 인간의 계시”와의 결정적 차이가 된다. 곧 “계시의 원천”의 관점에 따르면 하느님의 계시는 원천적으로 인간에게 보존되는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교회와 교회의 교도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완전히 반대로 되어야 한다. 곧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며 듣는 것을 통하여 존재하고 또 구성된다. 왜냐하면 계시하시는 하느님이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을 향하기 때문이다.²⁵⁾ “계시의 원천”에서 인식되고 있지 않은 바로 이러한 근원적 관계를 이 공의회는 새롭게 그리고 중요하게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칼 라너는 계시의 개념을 형식적으로 그 원천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부터 그리고 그것 본연의 내용으로부터, 곧 하느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로부터 결정한다. 하느님의 계시가 이 구상의 전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하느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체험 공간’으로부터 전개된다.²⁶⁾ 바로 이것이 “계시의 원천”과 “하느님과 인간의 계시”의 결정적 차이를 낳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다.

“계시는 인간에게 하느님에 의한 자기 본연의 소명을 알게 하며, 하느님을 자신을 부르는 분으로 깨닫게 한다.”²⁷⁾ 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일 없이 하느님의 계시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계시는 인간을 수신자로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의 가장 완전한 구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시의 자의적 수신자가 아니다. 하느님이 “자신의 (신적) 생명에 참여하도록”²⁸⁾ 인간을 부르는 자로서 인간에

24) 같은 책, 490-491 참조.

25) H. Sauer, 앞의 책, 491 참조.

26) E. Klinger, 앞의 책, 92.

27) 같은 책.

게 자신을 열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시는 인간에게 그 자신과 하느님 자신에 대한 사정을 알려 주며, 인간이란 누구며 하느님은 누구인지를 열어 보인다. 곧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으로 불리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이가 누구인지를 인간에게 분명하게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느님이 인간을 부르는 것을 토대로, 어떻게 계시가 일어나는지, 계시가 무엇을 야기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며, 계시 자체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다.

총괄적으로 칼 라너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계시”를 통해 파악되는 계시 개념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²⁹⁾

① 계시 개념은 말과 행위를 관련시킨다. 말은 행위를 통해 이야기되고 행위를 열어 보이며, 행위는 말로 진술된 것을 실행하고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과 행위는 서로를 설명한다.

② 계시 개념은 계시를 그 첫 단초에서 역사적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이 그 단초가 말하고 있는 것을 현재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생생한 소통의 사건인 계시에는 아주 본질적인 현재성이 수반된다.

③ 계시 개념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뤄지는 대화의 인격적 원리를 확고히 한다. 하느님은 자신을 계시하면서 인간을 자신과의 공동체로 부르고 그 공동체를 세운다. 이 공동체는 하느님을 인간과 결합시키며 또 이들 인간을 서로 결합시킨다.

④ 계시 개념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이자 그 스스로 계시이면서 그 계시를 알리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의 탁월한 구체성을 발견한다.

⑤ 계시 개념은 구원을 파견하는 교회의 기초를 세운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말이 역사적으로

28) K. Rahner, “De revelatione Dei et Homini in Jesu Christo Facta”, *Glaube im Prozess*, 37.

29) Y. Congar, “Erinnerungen an eine Episode auf dem II. Vatikanischen Konzil”, *Glaube im Prozess*, 22-50 참조; H. Sauer, 앞의 책, 494 이하 참조.

파악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시는 그것의 세상적 장소를 가지며, 신약 성경적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그것의 사회적 현재성을 지닌다.

이러한 라너의 계시 이해가 『계시 현장』의 탄생과 내용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다음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계시 개념의 특징

앞의 두 구상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과 이후의 계시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계시가 교의(Dogma)냐, 아니면 실제 사건이나 하는 것에 있다. 공의회 이전까지 통상적으로 계시는 초자연적 방법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 진리에 대한 정보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계시 개념은 주지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 견해를 낳게 되었으며, 결국 계시를 하나의 ‘가르침’이나 ‘교의’(Dogma)로 이해하게 만들었다.³⁰⁾ 이처럼 공의회 이전의 계시 이해는 하느님의 자기 해명에 대한 인식적인 관점 위에, 곧 초월적 하느님과 초자연적 신비를 인간이 인식하도록 열어 보이는 말씀 사건에, 진리의 전달에, 그 자체로 철저하게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진 가르침으로서의 계시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에 대한 이러한 오해를 완전히 불식했다. 이 공의회는 계시를 말을 통한 객관적 전달로 이해하지 않는다. 곧 인간이 통상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신적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자기 전달로 묘사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 하느님은 인간의 인식에게만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 실재를 인간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현존하게 하여 실제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계시는 어떤 개념론적-주

30) H. Fries, “Kirche und Offenbarung Gottes”, *Die Autorität der Freiheit*, Bd. I, Hg., J.C. Hampe, München, 1967, 155 참조.

지주의적 말(言語) 계시가 아니라, 인격적-구원론적 실제 계시이자, 인간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DV 2)하게 되는 한 사건이다.³¹⁾

전체적으로 『계시 현장』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계시 개념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화적-인격적이다. 하느님의 계시는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자연적 진리의 언어적 객관적 전달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인격적, 대화적 사건이다. 따라서 계시는 두 인격적 주체의 자유로운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을 『계시 현장』 2항은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로, 또 우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과의 전체적 관계가 두 인격적 주체의 사랑과 우정의 관계임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역사적-성사적이다. 하느님의 계시는 말씀과 행위를 통해 세상 안에, 인류의 역사 안에서 전달되고 일어난다. 곧 초월적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하느님의 자기 전달의 신비의 중개가 내적으로 결합된 말씀과 행위의 상호 해석과 교차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하느님의 계획(*consilium Dei*)과 그분의 역사적 구원 행위(*facta salutaria*)를 포괄하며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계시의 역사적-성사적 구조가 파악된다. 곧 말씀과 행위로 구성된, 하느님의 구원 활동의 신비가 ‘성사 사건’(*res sacramenti*)으로 의미를 갖듯이, 그와 유사하게 말씀과 행위가 내적 결합 안에서 하느님의 자기 전달 사건을 전달하여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시공간적 사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DV 4).³²⁾

셋째,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하느님의 계시는 인간이 되어 인간

31) J. Schmitz, 앞의 책, 23-24 참조.

32) 계시의 역사성과 성사성에 대한 언급은 플로리트(E. Florit) 대주교에서 비롯되며, 이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 H. Hoping, “Theologischer Kommentar zur Dogmatischen Konstitution über die göttliche Offenbarung *Dei Verbum*”,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Zweiten Vatikanischen Konzil*, Bd. 3, Hg., P. Hünemann, u.a., Freiburg: Herder, 2005, 741; J. Schmitz, 앞의 책 24-25.

의 역사 안에 들어온 제2위격의 말씀의 육화 사건 없이 생각할 수 없다. 곧 말씀의 육화는 하느님의 계시 역사의 절대적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역사 안에 드러난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수렴된다. 곧 그리스도는 계시 자체이자 전체 계시의 중개자이며 동시에 충만함이다(DV 2). 또한 인간에게 파견되어 하느님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새로운 계시는 있을 수 없다(DV 4).

넷째, 보편주의적이다.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 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계시 현장』 1항은 계시를 통한 구원사의 포괄적인 전망, 곧 온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며, 7항은 하느님의 계시가 모든 세대, 온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러한 『계시 현장』의 관점은 이 공의회회의 다른 문헌, 곧 『교회 현장』(*Lumen Gentium*, 이하 LG로 표기)과 『사목 현장』(*Gaudium et Spes*, 이하 GS로 표기) 그리고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Nostra Aetate*, 이하 NA로 표기)에서도 나타나듯이 보편주의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III. 인간의 실존과 계시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것은 곧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³³⁾라고 볼트만(R. Bultmann)은 말한다. 이것은 칸트(I. Kant) 이후 하느님에 대한 물음이 인간에 대한 물음과 깊이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철학사(哲學史)와도 상응한다. 칸트는 인간에 대한 물음에서, 곧 인간의 자유와 희망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윤리적 당위의 최종

33) 프리스(H. Fries)의 글에서 재인용: H. Fries, *Fundamentaltheologie*, 181; R. Bultmann, “Welchen Sinn hat es, von Gott zu reden?”, *Glauben und Verstehen I*, Tübingen, 1933, 26, 37.

토대이자 인간적 희망의 마지막 기반으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물음으로 나아간다.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한 추구 또한 함께 있고,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인간은 늘 자기 자신 안에 지니고 있다.³⁴⁾ 우리가 삶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물음 안에서 모든 인간적 문제의 실존적 핵심에 직면하게 되면, 이 물음은 인간 자신을 벗어난 문제임을 알게 되고 마침내 하느님과 마주치게 된다. 인간이란 결국 자기 삶의 의미를 추구해 가는 가운데 하느님에 대한 물음 앞에 서게 되는 존재인 것이다.³⁵⁾ 인간이 하느님에 대한 물음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향해 가도록 정해진 존재임을 의미한다.

하느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인간의 계시적 존재의 속성’³⁶⁾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천명하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 자신의 전달과 그런 하느님으로부터 당신의 신적 공동체로 불림 받은 인간이라는(DV 2) 계시의 본질과 연결된다. 그것을 위해 하느님 스스로 인간이 되신 말씀의 육화 사건이 계시의 정점을 이루면서, 완전한 인간이며 참 하느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가 구원으로 불리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당신과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느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간 그리고 그런 하느님과 인간 일치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다. 결국 계시의 모든 내용과 중개가 인간의 구원을 향한 것이라고 할 때 하느님의 실재는 인간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조정하며 구원하는 힘으로서 하느님의 실재는 인간과 절대적으로 관계한다.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오는 타자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가장 내면의, 자기의 구원만이 홀로 존재하는, 본질적 규정으로서 인간과 관계하는 것이다.³⁷⁾ 이것이 하느님과 인간의 궁극의 관계이며, 그런 점에서 계시

34) J. Alfaro, “Die Frage nach dem Menschen und die Gottesfrage”, *Glaube im Prozess*, 460-461 참조.

35) 같은 책, 462 참조.

36) H. Fries, *Fundamentaltheologie*, 183 참조.

와 인간학이, 계시와 인간의 실존이 가장 내면적으로 서로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아래에 이러한 인간의 실존과 계시와의 관계를 하느님의 계시의 목적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계시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계시의 삶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사실 이 공의회 of 핵심 주제인 ‘교의학과 사목의 상호침투’³⁷⁾의 실재를 고찰하는 것과 통하며, 이 고찰 과정에서 이 공의회 of 계시 이해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드러나는지도 함께 볼 것이다.

1. 하느님과 그리스도 안에 불림 받은 인간(인간의 하느님 본성 참여): 계시의 목적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의 내용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며, 계시 자체는 인간의 신적인 본성 참여를 의미함을 분명히 한다. 곧 삼위일체적인 그분 본성에 따라, “사람이 되신 말씀”인 “그리스도

37) M. Seckler, “Der Begriff der Offenbarung”, *HFth*, Bd. 2, 79 참조.

38) ‘교의학’과 ‘사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천명하는 교회에 대한 기본원리이다. 곧 내향적 교회와 외향적 교회에 대한 전체 계획(수에넨스 추기경)으로 대변되는 교회의 혁신 프로그램이 바로 교의학적-사목적 진보의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교회 자체와 교회의 전승 안에서 세상적 임무와 정신적 과제를 어떻게 병립시키는가가 공의회 of 열쇠였고, 교의학과 사목이라는 양극의 상호침투 안에서 공의회는 진보와 혁신의 방향을 찾았다. 공의회는 교회의 사목에 대해 교의학적으로 진술하고, 교회의 교의학에 대해 사목적으로 진술하면서, 『사목 현장』을 통해 새로운 교의학적 가르침인, ‘하느님과 그리스도 안에 불림 받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교회 현장』을 통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과제를 지닌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사목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교의학과 사목의 상호침투라는 공의회 of 핵심은 바로 말(씀)과 행위로 전승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하며, 바로 그 때문에 계시 자체와 연결된다. 복음의 메시지는 교의학과 사목의 일치를 구체화하고, 그런 까닭에 이 두 원리(교의학과 사목)는 성경적 성격을 지니며, 이 두 원리를 통해 교회는 자기 본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그렇게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현대 세상 안에서 -계시를 간직하고 또한 전달하는- 계시 자체의 사실이 되고, 공의회는 『계시 현장』 안에서 이 교의학적, 사목적 원리의 성경적 성격을 밝힌다. 결국 이 중요한 문제, 사목이란 교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공의회는 계시 자체에 대한 견해로써 대답했다고 볼 수 있다. E. Klinger, 앞의 책, 91 이하, 135 이하 참조.

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다가가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 하게 되는 것이 목표이며, 그런 하느님의 공동체와의 일치로 인간이 불리었음을 말하고 있다 (DV 2). 곧 계시는 하느님과의 일치로 불림 받은, 하느님에 의한 인간의 구원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엄청난 신적 구원 사건을 인간이, 그것도 자기의 실존을 통해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계시의 목적에 대한 인간의 인식 문제를 탐구해 본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적 실존은 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사목 현장』은 제1부 “인간의 소명과 교회”라는 제목 아래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고 창조주를 알아 사랑하며, 창조주로부터 세상 만물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만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GS 12)라고 말한다. 라너의 구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느님과 인간의 계시”(De revelatione Dei et hominis in Jesu Christo facta) 또한 인간은 인류의 처음부터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어(창세 1,26 이하 참조) 하느님을 향해 가도록 정해진 존재임을, 하느님의 자유 의지와 은총으로부터,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1요한 4,19) 받아들이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이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도록 그분에 의해 정해진 존재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³⁹⁾

여기서 인간에 대한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신학적 진술이 나타난다. 곧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다. 이 안에 그리스도교적 인간학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이 들어 있다. 곧 인간의 실존은 자기 자신 덕이 아니라 하느님 덕분이라는 것. 그렇게 기원은 목표 또한 결정한다. 시원(始原)론적 ‘어디서(기원)’는 종말론적 ‘어디로(목표)’를 가리키고 있다.⁴⁰⁾ 위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이 사실

39) K. Rahner, “De revelatione Dei et Hominis in Jesu Christo Facta”, *Glaube im Prozess*, 34.

을 『계시 현장』 1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이 당신과 공동체를 이루도록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DV 2)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인간 삶의 목표가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를 통해서이다. 하느님 자신이 당신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당신께로 부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계시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계시 현장』 1장은 우선 하느님의 이러한 부름을 인간의 체험 공간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계시를 구원사적 경험 사실로 말하기 시작한다. 하느님은 원조들과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조들과,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며(DV 3-4), 당신 백성의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인간을 당신과의 공동체로 부르고 계셨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는 하느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드러나듯이 당신 백성을 당신과의 공동체로 초대하시고 교육하시는 인격적 하느님이다. “그분 백성은 -비록 종종 반항적이긴 했어도- 그분께로부터 불리어져 교육되고 가르침을 받고 별 받기도 하고 구원되었다. 마치 아이가 자기 부모를 알게 되듯이, 바로 그렇게 그 백성은 하느님을, 그분의 보살핌, 지존함, 성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⁴¹⁾ 곧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반항과 거역을 하다가도 하느님의 충실한 사랑에 의해 다시 구원됨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과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계시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시가 드러나는 과정과 구원의 역사는 서로 맞물려 있다. 결국 인간이 절대자인 하느님과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계시’라는 신적 구원 사건을 인식하는 관건이 된다.

40) H. Sauer, 앞의 책, 122 참조.

41) P. Smulders, “Zum Werdegang des Konzilskapitels, ‘Die Offenbarung Selbst’”, *Glaube im Prozess*, 116.

이것은 이 공의회가 이해하는 계시의 인격적-대화적 요소와 통한다. 또한 계시란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역동적 사건임도 드러난다. 『계시 현장』은 이러한 계시 사건을 그 특성에 맞게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인격적 만남의 사건으로, 그리고 말씀과 행위, 실재와 언어를 결합시키는 인격적이고 역동적 사건으로 묘사한다. 곧 하느님이 인간에게 친구를 대하시듯이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DV 2), 그들을 언제나 친절히 만나주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며(DV 21), 끊임없이 그들과 “대화”하신다(DV 8). 이 같은 계시의 인격적-대화적 개념은 계시가 단순히 구원 사건에 대한 가르침으로만, 그리고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이 단지 신적인 정보의 수신자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실제적인 자기 전달 안에서 인간이 자신의 전체 실존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생명 공동체의 파트너로 불림 받은 존재임을 드러낸다.⁴²⁾

인간은 이렇게 계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간다. 곧 인간은 누구이고 하느님은 누구인지를 계시가 밝혀준다. 그리고 계시 자체 안에, 하느님의 말씀과 행위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알려 준다.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이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것, 곧 진리와 생명의 나라, 성덕과 은총의 나라,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그렇게 자기 피조물에게 부여한 은사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의 목표다.”⁴³⁾ 그러므로 인간이란 결국 하느님이 당신 자신의 자유로운 공동체로 부른 존재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고찰될 수 있다.⁴⁴⁾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실제 삶과 역사의 중심 주제는 하느님과의 신비적 결합으로 불린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하느님 나라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느님과 인간의 신비적

42) J. Schmitz, 앞의 책, 26 참조.

43) K. Rahner, 앞의 책, 34.

44) E. Klinger, 앞의 책, 93 참조.

일치’라는 계시의 목적을 인간은 인식할 수 있다.

‘일치’라는 말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일치란 하느님이 인간이 되듯이 인간이 하느님이 되어가야 한다(神化)는 말과 통한다. 이는 하느님이 인간이 된 것이 인간으로 머물러 있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하느님에게로 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구원은 다름 아닌 ‘하느님’자신이라 할 수 있다(DV 6).⁴⁵⁾ 곧 인간 삶의 완성이자 동시에 계시의 완성인 인간의 구원은 하느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⁴⁶⁾ 이런 의미에서 『계시 현장』이 말하는 인간의 하느님 본성 참여는 인간이 하느님이 되는 것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그리스도 육화 사건이 매 번 새롭게 구체적 인간 안에서 ‘사람이 되어 가는 말씀’으로, 인간의 실존과 역사 안에 작용하면서 인간을 향하는 하느님의 부름으로, 동시에 인간의 신성(神性)에의 참여로 파악되면서, 신학적으로 ‘인간’이란 개념을 통찰하게 한다.

2.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인간: 계시에 대한 신앙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7). 이 성경 구절은 여기서 다루게 될 문제의 핵심과 잘 상응한다. 인간의 하느님 본성 참여와 더불어 하느님과 인간의 일치가 계시의 목적이라면 여기서는 그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인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응답하는 인간의 신앙에 대해 다룬다.

45) 하느님이 계시로써 드러내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과 인류 구원에 대한 당신 의지의 결정들이며, 당신의 신적 부요에 인간을 참여케 하셨으므로(DV 6), 결국 인간의 구원은 하느님의 역사적 계시 안에서의 그분 자신이라 할 수 있다. H. Hoping, 앞의 책, 748-749 참조.

46) M. Seckler, 앞의 책, 78 참조.

계시를 당신과의 삶의 일치를 위하여 인간에게 마주 오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초대라고 할 때, 계시가 역사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이다.⁴⁷⁾ 그렇다면 인간은 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신앙의 응답을 드릴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당신과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신다는(DV 2) 것을 인간은 어떻게 신앙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확실히 계시의 역사적 구체성과 본질적 현재성에 대한 이 공의회는 계시 개념과 관계가 있다.

계시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건이며, 언어 계시가 아니라 실제 계시이고,⁴⁸⁾ 하느님의 자기 전달임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말씀의 육화 사건이다. 거꾸로 말하면 말씀의 육화 없이 계시란 다시 -실재 없이- ‘말’에만 머물러 있는 공허한 교의(Dogma)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적 성격을 외면하고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천명한다.⁴⁹⁾ 『계시 헌장』을 시작하는 첫 마디,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이란 결국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로 향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해 『계시 헌장』은 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영원한 말씀이신 당신 아드님을 파견하셨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서는 인간 가운데 사시며 인간에게 하느님의 내면을 알려 주심으로(요한 1,1-18 참조) 모든 인간을 비추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육을 취하신 말씀이시며 ‘인간들에게 파견되신 인간’이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하시며’(요한 3,34),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임무를 완수하신 분이시다”(DV 4).

47) 김광식, “하느님의 자기계시와 구원”, 『사목』 125, 1989, 47 참조.

48) H. Ott, “Die Offenbarung Gottes nach den Konzil”, *Die Autorität der Freiheit*, Bd. I, 169 참조.

49) 서공석, 『새로워져야 합니다』, 분도출판사, 1999, 19 참조.

계시란 본래 하느님의 말씀이 소유되거나 관리되는 곳이 아니라 믿으며 알아듣고 대답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곧 그가 아버지로부터 믿으면서 들은 것을 (또는 들은 것에서)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완전한 계시자로 불리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하느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리고 그를 벗어나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DV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 계시의 중개자이자 충만이요 완성인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할 나위 없는 구체화에 이른 계시 사건을 열어 보인다. 따라서 예수가 자신의 말과 행위를 통해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믿으면서 들어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들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바로 그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계시의 심연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계시 현장』은 “하느님과 인간 구원에 관한 심오한 진리가 중개자이시며 동시에 모든 계시의 충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밝혀진다”(DV 2)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예수의 말과 행위 안에서, 그의 전체 활동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신비와 하느님의 신비가 밝혀진다. 그는 삶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선과 악, 고통과 죽음, 나아가 궁극적 진, 선, 미에 대한 인간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또한 그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희망과 사랑에 대한, 다른 사람과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에 대한 하느님의 물음에 대하여 답을 준다.⁵⁰⁾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느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가 살았고 행했던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와 인간의 운명이 똑같이 궁극적으로 계시되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보편적 중요성과 보편적 구원의

50) E. Klinger, 앞의 책, 104.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 보편적 구원의 의미가 똑같은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출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면서 그는 자신의 실존과 운명 안에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 감추어진 인간성의 진리 자체 또한 관철시킨다. 바로 이 점에서 인간 또한 자기 실존을 통하여 신적 공동체에,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일체를 이룬 사람으로서 예수는 동시에 참 인간이며, 인간의 원형이요 완성이며 규범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것을 포괄하고 보유한 그의 실존의 근본적 실행 안에서 그는 인간성의 마지막 신비로서의 하느님 자신을 계시하며, 인간 실존의 가장 심오한 의미이자 최고의 실현인 하느님과의 공동체와 사랑의 귀의를 드러낸다.⁵¹⁾ 곧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하느님과 인간의 진리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인간이 “신앙의 빛”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비”를 대하는 곳에서 현실을 바꾸는 신앙의 힘이 자기에 열려진다는 것은 분명하다(DV 24). 이럴 때 비로소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신앙의 복종”을 드러내는(DV 5) 일이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거듭 만남의 사건이며 동시에 인격적 관계 사건의 관점에서 보는 계시 이해를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주체 앞에 스스로를 여는 인간 주체의 자유 안에 계시로 나타난다.”⁵²⁾ 말씀하시는 주체인 하느님과 그 말씀을 듣는 주체인 인간의 자유 사이에 계시가 실제로 일어나 그것이 인간에 의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계시를 받아들임으로서의 신앙은 인격적 범주 안에서 동시에 순종의 행위로 묘사된다. 곧 인간이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자유로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께 자기 지성과 의지의 완전한 순종과 계시 내용에 대한 자의의 찬동을 드러내는 것이다(DV 5).

이 말은 계시는 언제나 그리고 오직 신앙이 있는 곳에서만 현실

51) A. Schilson, “Jesus Christus(Systematisch-theologisch)”, *LThk*, Bd. 5, 832 이하 참조.

52) 서공석, 앞의 책, 20.

이 된다는 말과 통하며, 계시와 신앙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실존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신앙은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다.”⁵³⁾ 신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그의 가장 절절한 동경의 근원에까지 밀고 나아가게 하는, 하느님에 대한 결정이며, (자신의) 전체 삶이 돌아가게 하는 중심축에 대한 결정이다.”⁵⁴⁾ 이 신앙 안에서 인간은 자기의 실존을 이해하며, 하느님과 그리스도께로 불린 자신의 소명과 부활 그리고 계시의 목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구속을 믿는다.

결국 계시의 목적인 인류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말씀이며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인간의 신앙이다.

결론적으로 신앙은 실존의 문제이며 인간 자신에 대한 물음이고 하느님을 향한 자기 믿음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신앙과 인간의 실존은 내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이 둘은 계시의 원천이자 동시에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리됨 없이 결합되어 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간: 계시의 삶

계시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사건이자, 한 인격적 만남, 하나의 공동체에 관한 문제라면, 그 안에서 인간이 말씀을 듣는 이로서, 구원과 행복을 찾는 이로서 자기 실현을 발견하고, 하느님이 당신 자신, 당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공동체에 관한 문제라면, 그 때 말씀은 그것의 다양한 차원과 ‘실제’(F. Ebner) 안에서 계시의 장소가 된다.⁵⁵⁾ 더 정확히 말하면 다양한 차원과 실제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응답하는 인간이 바로 계시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느님의 계시가 인간에 의해 받아들여져

53) E. Klinger, 앞의 책, 625.

54) E. Stakemeier, *Die Konzilskonstitution über die göttliche Offenbarung*, Paderborn, 1967², 181.

55) H. Fries, *Fundamentaltheologie*, 225 참조.

실제로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계시의 실행, 계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역시 이 계시 실행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인간이 된 하느님의 말씀인 예수 안에서 인간 또한 하느님 말씀의 차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예수 안에서 서로 중개된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계시가 다루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하느님 본성 참여와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계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거쳐 일어난다. 그런 점에서 계시의 목적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파견의 최종 목적이 된다. 아니 싸우어(H. Sauer)의 말을 빌리면 이러한 그의 파견 자체 안에서 계시가 일어난다. 계시는 허공에다 대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달이 아니라 계약 파트너이자 듣는 수신자로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 대답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게로 그 말씀과 전달이 도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⁵⁶⁾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파견이, 그리스도의 육화가 일상 안에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이 관건이다.

이것은 분명 계시의 역동성과 보편적 구원의 성사성과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계시가 목적하는 인류의 구원 사건 자체의 역사적 관철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이 계시 사건의 행위자인 하느님과 공동으로 인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계시의 하느님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전달하고, 하느님 자신의 구원 실재에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 인간을 참여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다. 실제로 인간의 하느님 본성 참여와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계시의 목적을 들여다보면 참여와 일치라는 두 중심 사상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치(공동, communio) 사상이 하느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가능해진 인격적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참여 사상 안에는 ‘신적

56) E. Stakemeier, 앞의 책, 181.

부요'(bona divina)에의 참여 허용, 곧 진리, 정의, 사랑, 평화에의 참여에 대한 허용이 들어 있어 그것과 함께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는) 사회적·사건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⁵⁷⁾ 이렇게 하느님 본성 참여란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공동 행위자가 되는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곧 계시에 대한 신앙을 단순히 계시된 문장들을 이론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기 계시의 '따름'과 그에 대한 '상응'으로 드러내야 한다.⁵⁸⁾ 그리스도를 따름은 그리스도의 파견이며, 하느님 말씀을 현재화하는 것으로 비록 새롭게 수천 수백만의 다른 방법으로 -각자에게 다르게- 육화한다 해도 언제나 수행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사건을 현재, 오늘 그리고 지금 일어나게 하는 것, 그렇게 계시가 실행으로, 지금, 오늘, 궁극적인 것의 실행으로 존재하는 것이 계시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의 장소가 교회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⁵⁹⁾ 물론 하느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기초로 할 수는 있어도 계시는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치 현상에서, 국제 공동체 안에서, 어디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인간의 사건과 욕구와 바람 속에서 현대 세상의 참 표징과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바로 이것에 대해 『사목 현장』은 말을 하고 있다.⁶⁰⁾ 시대의 징표와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57) M. Seckler, 앞의 책, 67 참조.

58) 같은 책, 72 참조.

59) 이성배, “현대사목과 계시론”, 『神學展望』 72, 1986, 114 참조.

60) 달리 표현하면, 『사목 현장』은 인간의 자기완성을 위한 길로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다른 이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한 인간 활동의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육화의 신비와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곧 인간은 육화의 신비로 드러난 '완전한 인간'인 그리스도의 모습(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 모범으로 보여 준 모습)을 닮을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자기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현장』에 나타난 인간관에 대한 고찰”, 『인간연구』 15, 2008, 93 참조.

깨닫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명확한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더 인간답게 된다”(GS 41). 곧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 인간의 모범이며, 인간 사회의 올바른 구성을 이끄는 지도자이고,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자이며, 전체 인류 역사의 열쇠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계시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사목 현장』은 이 대답과 함께 그 구체적 실천의 장(場)도 자세히 제시한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요약,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혼인생활과 가정의 신성성 안에서 인간적 완성과 성화의 길을 발견하며(GS 47-52), 개인과 사회와 교회의 구원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에서부터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에 대한 참된 존엄성을 향유함으로써 계시의 장소로서의 인간을 의식하는 것.
- ② 현대의 물질 세상 속 노예화로부터의 해방(GS 63, 64, 67)과 공동선을 위한 진정한 노력(GS 26, 74, 75, 77), 그리고 전인(全人)을 위한 새 교육과 새 정신(GS 61, 62)을 통하여 인간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것.
- ③ 문화를 창조하고(GS 53, 55, 57), 학문을 연구, 발전시키며(GS 57, 62), 세상 안에 인간적 질서를 세워나감으로써(GS 35, 41), 하느님 계획의 역사적 실행에 인간이 동참하는 것.
- ④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GS 27, 28, 93)을 기반으로 새 형제 공동체안의 그리스도교적 연대(GS 32, 42, 43, 44, 45), 사회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의무(GS 63, 66, 73, 76) 그리고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교적 봉사(GS 78, 79, 80, 81, 82, 89, 92)를 실행함으로써 세상 안에 하느님의 가정을 형성하는 것.
- 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선택(GS 1, 69, 88, 90)과 교회 일치 운동(『일치의 재건』 1, 9; LG 2), 그리고 종교간 대화 및 타종교 안의 진리 인정(NA 2; LG 16) 등을 통하여 ‘진리와 생명의 나라,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GS 39)인 하

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이렇게 계시는 실제로 인간 사회를 둘러싼 모든 영역에서 실행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계시는 지속된다. 곧 어떠한 장소에서든 또 언제든지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역사 내용은 신앙으로 응답하는 인간의 다양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교회 안의 교리나 전례 생활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으로서 인간의 의식, 인간의 회개, 인간의 재능, 인간의 선포, 인간에 대한 희망 같은 것들로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 안에서의 구체적 계시의 삶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계시의 전달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계시가 그리스도교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면 계시의 전달 역시 불가분 그리스도교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계시의 전달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전달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서 그리스도화(化)되는 속에서 인간은 하느님과 그리스도께로 불린 자기 소명의 실현으로, 하느님 안의 자기 완성으로, 비로소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하느님 본성에의 참여로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계시, 인간 편에서의 계시의 실행이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처해진 자신의 삶의 상황과 가능성에 따라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상에서 인간적 공동 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역(逆)으로 계시는 인간 전체를 대하고 모든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살아 움직이는 힘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계시의 실행과 전달, 곧 인간 삶의 모든 영역과 구체적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이 결국은 이 세상과 온 인류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DV 7)는 점에서 가장 구체적인, 계시의 보편적 구원의 성사성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IV. 나가는 말

계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계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계시’를 사고의 기초로 하여 인간 편에서 일어나는 계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고찰하려는 일에 본고는 역점을 두었다. 그것에는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무엇보다 계시가 인간 실존의 내용이며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삶의 주제여야 함을 인식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해하는 계시는 무엇보다 가르침이나 교의가 아닌 하느님의 실제적 자기 전달이다. 하느님이 어떤 초자연적 진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주시는 사건인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육화 사건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사실 이 사건 없이 계시는 의미를 잃는다. 따라서 계시의 본질과 내용과 목적 모두에는 참 하느님이며 완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하느님과 만난다. 칼 라너가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내재성이 서로 중개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었듯이 인간이 된 그 하느님 안에서 인간이 하느님이 되어가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고 완성이며, 인간의 구원인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당신 본성에 참여하도록 부른 것을 달리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느님과 그리스도 안에 불림 받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⁶¹⁾라고 한다면, 이 교의에 사목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교의학과 사목의 상호침투라는 이 공의회 핵심 주제와, 또 ‘교회 쇄신과 현대 세계로의 적응’(aggiornamento)이라는 이 공의회 표어와 부합된다.

결국 본고가 지향하고자 한 바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 아니, 정확히 그것을 겨누고 있다. 곧 계시와 인간의 실존과의 관계는 교의

61) E. Klinger, 앞의 책, 139.

학과 사목의 상호관통, 말하자면 이론과 실제의 상호침투와 통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중심 주제이다. 그것을 일상에서 풀어내는 것, 곧 이 공의회가 자각한 계시의 역사성과 육화에 대한 심화된 이해의 신학적 인식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실행 안에서 구원과 해방의 순간으로 체험하고 드러내는 것이 전달되고 인식되기 위해선 종전의 하느님으로부터의 계시보다 인간 편에서의 계시가 더 강조되어야 했다. 인간 편에서의 계시의 들음과 받아들임과 믿음이 수반되지 않고는 하느님의 계시는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느님과 인간의 공동 행위라 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해하는 계시, 곧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이며 만남이고, 함께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건이며 행위인 그것은 바로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며, 인간의 구원이 결국 하느님‘인’한,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계시의 목적인 인간의 구원도 일어나는 것이다.

곧 계시가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로이 일어나 인간을 함께 행동하는 자로 만드는 곳에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역사적 행위와 이러한 행위의 의미로서의 그분 말씀을 믿는 자가 하느님의 부름에 대답을 하고 그렇게 자기 편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곳에서 계시는 비로소 목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 그분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을 초월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가장 내면적 결정으로서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⁶²⁾

계시는 이처럼 인간 실존의 내용이자 의미로서 인간과 관계한다. 따라서 계시가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 또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께 신앙의 응답을 드리는 순간의 모든 공간과 환경이 다 포함된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모임이나 교회뿐만 아

62) H. Sauer, “Von den ‘Quellen der Offenbarung’ zur ‘Offenbarung selbst’”, *Glaube im Prozess*, 523 참조.

니라 온갖 다양한 사회와 세상과 전 인류가 그 대상이 된다. 계시 자체가 전 인류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시 인간의 기원과 본질적 조건, 그리고 목표(종착점)와 상통한다. 곧 인간을 포함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다시 하느님에게로 되돌아가도록,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으로 인간이 불린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 편에서의 계시의 실행이다.

총괄적으로 계시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포괄적인 기준점이라면, 교회, 하느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신앙의 그리고 신앙인의 공동체로 이해한다면, 계시는 근원적 주제로서 이러한 공동체와 그것의 역사, 전승의 영원하고 지속적인 주제여야 한다.⁶³⁾ 예수 그리스도, 참 하느님이요 완전한 인간인 그가 자기 안에서 하느님을 완전히 드러내어 그것으로 인해 그 스스로 계시자라면, 그리고 인간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결합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계시는 그의 역사와 그의 일상적 삶 안에서 주제가 되어야 한다. 인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 하느님과 그리스도께로 불린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인간 편에서의 계시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계시는 살아있는 인간을 현존의 장소로 요구하는 생생한 실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을 기초로 생각해 본 계시는 하느님 안의 자기 자신의 발견이자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실제 사건이며, 인간이 하느님이 되는 인간의 구원 사건이다.

하느님의 육화, 하느님 자신의 계시는 예수와 함께 시작한다.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이후에도 계속된다. 만일 계시의 전달이 완전히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인간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이러한 부름을 자기 일상 안에서, 자기 고통과 기쁨, 패배

63) H. Fries, *Fundamentaltheologie*, 303 참조.

와 승리 안에서 계속 젊어지고 가야 한다. 그렇게 계시는 인간이 하느님과, 계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바로 그의 일상적 삶 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한다.*

* 투고일: 2012. 1. 9
수정일: 2012. 2. 23

심 사 일: 2012. 2. 17
게재확정일: 2012. 3. 2

참고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김광식, “하느님의 자기계시와 구원”, 『사목』 125, 1989.
- 서경룡, “계시와 증거”, 『가톨릭 신학과 사상』 44, 2003.
- 서공석, 『새로워져야 합니다』, 분도출판사, 1999.
- 심상태, “칼 라너의 계시이해”, 『神學展望』 81, 1988.
- 이성배, “현대사목과 계시론”, 『神學展望』 72, 1986.
- 조정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에 나타난 인간관에 대한 고찰” 『인간연구』 15, 2008.
- Alfaro, J., “Die Frage nach dem Menschen und die Gottesfrage”, *Glaube im Prozess*, Hg., E. Klinger & K. Wittstadt, Freiburg, 1984.
- Congar, Y., “Erinnerungen an eine Episode auf dem II. Vatikanischen Konzil”, *Glaube im Prozess*, Hg., E. Klinger & K. Wittstadt, Freiburg, 1984.
- Fries, H., *Fundamentaltheologie*, Graz, Wien, Köln, 1985.
- _____, “Kirche und Offenbarung Gottes”, *Die Autorität der Freiheit*, Bd. I, Hg., J.C. Hampe, München, 1967.
- Hebblethwaite, P., *Johannes XXIII*, Zürich, 1986.
- Hoping, H., “Theologischer Kommentar zur Dogmatischen Konstitution über die göttliche Offenbarung Dei Verbum”,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Zweiten Vatikanischen Konzil*, Bd. 3, Hg., P. Hünemann, u.a., Freiburg, 2005.
- Klinger, E., “Der Glaube des Konzils. Ein dogmatischer Fortschritt”, *Glaube im Prozess*, Hg., E. Klinger & K. Wittstadt, Freiburg, 1984.
- _____, *Armut. Eine Herausforderung Gottes. Der Glaube des Konzils und die Befreiung des Menschen*, Zürich, 1990.
- Ott, H., “Die Offenbarung Gottes nach dem Konzil”, *Die Autorität der Freiheit*, Bd. I, Hg., J.C. Hampe, München, 1967.
- Rahner, K., & Vorgrimler, H., *Kleines Konzilskompendium*, Freiburg, 1966.
- _____, “Bemerkung zum Begriff der Offenbarung”, *Offenbarung und Überlieferung*, Hg., K. Rahner & J. Ratzinger, Freiburg, Basel, Wien, 1965.
- _____, “De revelatione Dei et hominis in Jesu Christo facta”, *Glaube im Prozess*, Hg., E. Klinger & K. Wittstadt, Freiburg, 1984.

- _____, *Schriften zur Theologie XIV*, Zürich, 1980.
- Sauer, H., “Erfahrung und Glaube. Die Begründung des pastoralen Prinzips durch die Offenbarungskonstitution des II, Vatikanischen Konzils”, *Würzbruger Studien zur Fundamentaltheologie*, Bd. 12, Hg., E. Klinger, Frankfurt, 1993.
- _____, “Von den ‘Quellen der Offenbarung’ zur ‘Offenbarung selbst’”, *Glaube im Prozess*, Hg., E. Klinger & K. Wittstadt, Freiburg, 1984.
- Schilson, A., “Jesus Christus(Systematisch-theologisch)”, *LThk*, Bd. 5, Freiburg, 1996.
- Schmitz, J., “Das Christentum als Offenbarungsreligion im kirchlichen Bekenntnis”, *Handbuch der Fundamentaltheologie*, Bd. 2, Hg., W. Kern, u.a., Freiburg, 1985.
- Seckler, M., “Der Begriff der Offenbarung”, *HFth*, Bd. 2, Hg., W. Kern, u.a., Freiburg, 1985.
- Smulders, P., “Zum Werdegang des Konzilskapitels ‘Die Offenbarung Selbst’”, *Glaube im Prozess*, Hg., E. Klinger & K. Wittstadt, Freiburg, 1984.
- Stakemeier, E., *Die Konzilskonstitution über die göttliche Offenbarung*, Paderborn, 1967.
- Steins, G., “Bibel im Gespräch. Die verkannte Offenbarungskonstitution Dei Verbum”, *Herder Korrespondenz(Spezial)*. Das unerledigte Konzil. 40 Jahre Zweitens Vatikanum, 2005.10.

□ Abstract □

The Existence of the Human Being and the Revelation: Based on the Theology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Seo, Myong Ok

Revelation is the premise of faith and the foundation of Christian theology. Firstly, it is a statement that Christianity did not naturally emerge from an innate religious disposition of human beings, but is a religion based on the revelation of an external, transcendental God. Above all, this signifies an acceptance of the Incarnate Word of God, Jesus Christ, as the substance, mediator and completion of revelation. Therefore, whoever professes to be a Christian evidently has an inseparable connection to this revelation, as salvation is found in Christ who is the revelation itself. Even for Christians, however, revelation still remains foreign and ambiguous, and can even become a cautious, difficult and unapproachable subject at times. Faced with such a dilemma, this treatise offers a correct understanding of revelation, through the theology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that revelation is a concrete event which happens in the ordinary life of Christians, and is the substance and meaning of the existence of the human being.

Primarily, Revelation is an event, rather than a teaching. This is not some unapproachable divine instruction concerning supernatural truths or dogmas but a real, personal communication of God's self to humanity which, consequently, is an event of human participation in God's nature. The appearance of Jesus Christ as a man, the

event of his Incarnation, is a specific manifestation of this reality. As a whole, the existence of Jesus together with his words and actions is an image of the Kingdom of God. Precisely, it is the manifestation of God's divine plan for the salvation of humanity. Therefore the Incarnation signifies both the humanisation of God and an invitation for the divinisation of the human being. It is in the unity-event of God and the human being in which the transcendence of God and the immanence of human being in Jesus Christ are really mediated(K. Rahner), and the Revelation of God and the revelation of the human being coincide. Therefore the Incarnation of Christ can be realized only after it reaches the human being who believes in Christ and responds to him, the Word of God. From this viewpoint, the Incarnation of Christ happens and must happen to all human beings constantly and in all situations and conditions of life. That is the performance of the revelation of the human being in Christ, which happens in the daily life.*

* **Key Words:** Jesus Christ, The Second Vatican Council, The Revelation, The Existence of the Human Being, The Revelation of the Human Being